

# 한국 방송포맷에 대한 중국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1. 들어가며

몇 해 전만 해도 중국은 방송포맷이 발달한 서구에서 주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했다. 그러던 2012년 말, 후난위성TV가 MBC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입하여 2013년에 방송한 후 그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방송 매체에서 중국과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의 한류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거대한 중국시장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한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에 수출되었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런닝맨>이 각각 시청률 4.3%, 5.67%, 5% 이상을 기록하며 ‘시청률 1%가 대박’인 중국 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한국의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이 급증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 ‘광전총국’)은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2014년 초부터 적용), 해외 포맷을 수입해서 자체제작하는 경우에도 위성 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간 1개로 제한되고, 해외 프로그램 포맷 방송을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도입한 프로그램의 인기는 계속 치솟는데, 위와 같은 포맷 수입 제한조치까지 내려져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내용을 약간 변형시킨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목, 무대 구성, 내용까지 동일하게 베끼는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문제다. 예를 들어, MBC <무한도전>과 같이 인기몰의 경우 3개 방송사가 <진심영웅(真心英雄)>(강소위성TV), <극한도전(极限挑战)>(동방위성TV), <도전자연맹(挑战者联盟)>(절강위성TV)으로 타이틀만 바꿔 CG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방송하거나, KBS <개그콘서트>와 SBS <웃찾사> 두 개의 개그 프로그램 중 재미있는 코너만을 뽑아 표절해 한 편의 개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강소위성TV의 <같이웃자(一起来笑吧)>도 존재한다.

한국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항의하거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방송사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광전중국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계의 목소리가 많지만 현재의 저작권법 규정 하에서 침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횡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 표절의 현황을 살펴보고, 포맷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가능할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콘텐츠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방송포맷의 정의

그렇다면 방송포맷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방송포맷은 매회 다른 내용

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기본 구조가 되고, 대중이 같은 프로그램임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의 총합을 말한다.<sup>1</sup> 즉,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정보와 노하우의 집합체라고 한다. 방송포맷은 형태적으로 ‘바이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구성은 어떻게 하고 MC는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 말는지, 카메라의 위치 및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설명서), 플라이닝 프로듀서(포맷 수출국에서 포맷 수입국으로 파견되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작되는지 조언하는 역할), 비즈니스 키트(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위치가 좋은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묻는 형태를 포함함.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키트에는 광고주 리스트 및 간접광고의 유형까지도 포함됨)로 구성된다.<sup>2</sup>

그런데 포맷의 범위를 이와 같이 넓게 이해할 경우 지나치게 그 포괄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적 보호의 면에서 방송포맷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좁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sup>3</sup> 본고에서는 ‘협의의 의미에서 포맷은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약속 기획으로 프로그램의 표현 방식 및 특정 유형이 매회 반복되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포맷은 최근 프로그램을 거래하면서 사용되는 포맷 바이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sup>4</sup>를 따르기로 한다.

---

1 (Germany, Court of Justice)

2 방송포맷 표절에 대한 중국 저작권법 논란, 작성자 jesichoi, <상하이저널> 칼럼.

3 <저작권법> 제3판, 이해완 저, 박영사(2015)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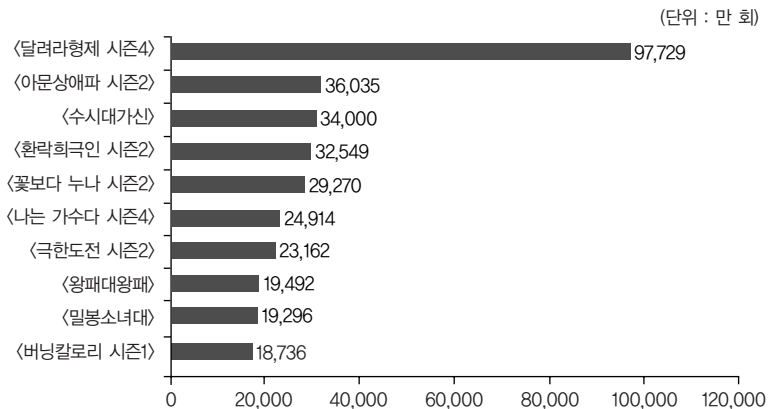
4 채정화·이영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1호(2010. 3.) p293.

### 3. 한국 방송포맷으로 제작된 중국 프로그램 순위 및 방송포맷 수출 현황

#### (1) 중국 프로그램 순위

중국 내에서 2016년 4월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예능 프로그램 조회 수 TOP10을 살펴보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7개나 된다. 그 중 1위는 중국판 <런닝맨>인 <달려라 형제 시즌4(奔跑吧兄弟 第4季)>, 2위는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인 <아문상애편 시즌2(我们相爱吧 第2季)>, 3위는 중국판 <히든싱어>인 <수시대가신(誰是大歌神)>, 5위는 중국판 <꽃보다 누나>인 <화양제제 시즌2(花样姐姐第2季)>, 6위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인 <아시가수 시즌4(我是歌手第4季)>, 7위는 중국판 <무한도전>인 <극한도전 시즌2(极限挑战第2季)>, 9위는 중국판 <프로듀스 101>인 <밀봉소녀대(蜜蜂少女队)>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극한도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프로그램들은 한국과 정식으로 포맷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들이다.

[그림 1] 2016년 4월 동영상 플랫폼 예능 프로그램 조회수 TO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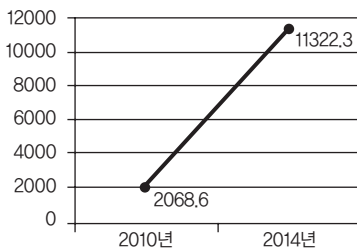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http://me2.do/5q6mGIHm>

또한 2016년 5월 순위에는 현재 위 프로그램들 외에도 중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 〈看见你的声音〉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sup>5</sup>

## (2) 한국 방송포맷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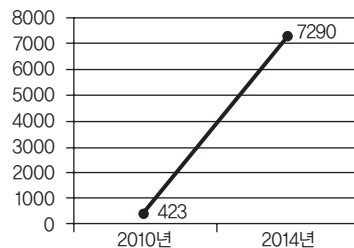
방송포맷은 프로그램 전체를 수출하는 것보다 문화 장벽이 낮아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영국만 해도 2013년에 방송사들이 방송포맷으로 얻은 수익이 6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각국의 방송사들은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수용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포맷’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방송 포맷 개발은 KBS, MBC, SBS와 최근 JTBC, CJ E&M(tvN, Mnet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5개 사가 2013년과 2014년에 신규 제작한 포맷은 총 53개 프로그램이다. 포맷 수출 역시 활성화되는 단계로서, 2010년 약 42만 달러 수준이던 포맷 수출액은 2014년에 약 730만 달러로 1,700% 이상 성장하였다. 예능 장르 수출 역시 2010년 대비 2014년에 540% 이상 성장하였다.

[그림 2] 예능장르 수출 현황



[그림 3] 포맷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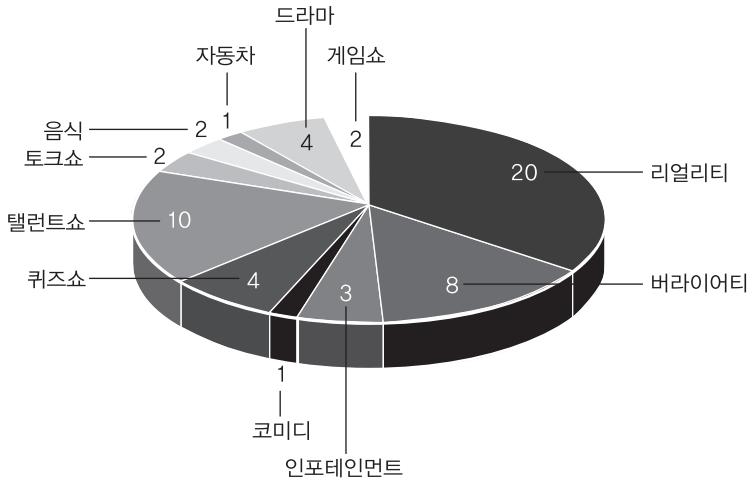


출처 : 콘텐츠진흥원, 〈방송포맷 수출입 현황조사 연구〉, 2015. 7.에서 재구성.

<sup>5</sup> “바다 건너 한국 예능, 요즘 성적 어때요?”, (2016. 5. 15.) TV Report / 중국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및 마케팅 기관 브이링크에이지 발표 5월 11일자 예능 프로그램 온라인 조회수 순위 참조.

[그림 4] 국내 방송포맷 수출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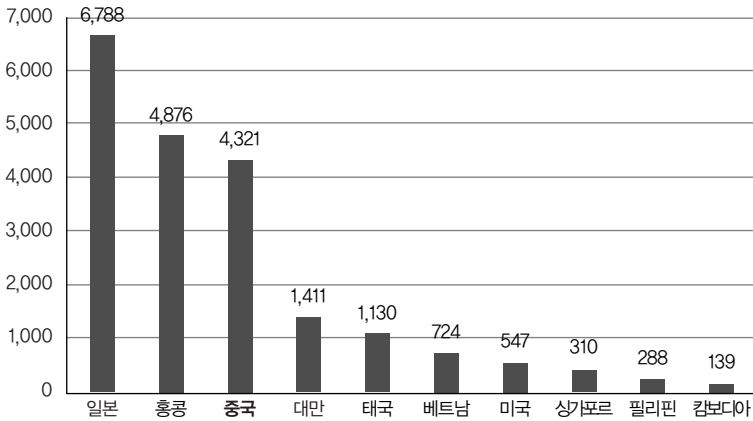
(단위 : 프로그램)



출처 : 콘텐츠진흥원, <방송포맷 수출입 현황조사 연구>, 2015. 7., p29.

[그림 5]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주요 수출국

(단위 : 만 달러)



주1) 해외교보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현황임.  
출처 : 방통위(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43.

#### 4. 중국 방송 프로그램의 한국 방송포맷 침해 현황

##### (1) KBS

프로그램 명	방송사	프로그램 명
〈안녕하세요〉	동방위성TV	〈사대명조(四大名助)〉
〈개그콘서트〉	강소위성TV	〈같이웃자(一起来笑吧)〉

##### 1) 〈안녕하세요〉

중국 동방위성TV의 〈사대명조(四大名助)〉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녕하세요〉와 스튜디오 구성, 방청객 배치, 진행 방식, 투표 및 우승자 선정 방식이 동일하다. 중국 내에서도 네티즌 및 보도 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표절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KBS는 동방위성TV에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로서 즉각 방송중단과 정당한 판권 구입을 요구한 상태이고, 광전총국에도 행정구체 등의 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사대명조〉
스튜디오 구성		
방청객 스튜디오		
사연소개		

사연소개 주인공 등장		
-------------------	---	---

## 2)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중국 강소위성TV의 <같이 웃자(一起来笑吧)>는 코너 제목, 내용, 인물 설정, 무대 배경, 효과음, 전개 방법 및 주요 대사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KBS가 상해동방위성TV와 진행하던 중국판 <개그콘서트> 공동제작사업에도 차질을 빚었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같이 웃자> '시청률의 제왕'
인물 및 무대설정		
코너제목		
효과		
극의 전개		



## (2) 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은 중국의 CCTV가 정식으로 판권을 구입해 중국 내에서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으나 다른 위성방송사 3개가 각자 <무한도전>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함으로써 합법과 불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였다.

프로그램 명	표절 방송사	프로그램 명
<무한도전>	강소위성TV	<진심영웅(真心英雄)>
	동방위성TV	<극한도전(极限挑战)>
	절강위성TV	<도전자연맹(挑战者联盟)>

아래 표를 살펴보면 <무한도전>과 <극한도전>의 아이템, CG, 소품, 카메라 워크, 설정 등이 거의 동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무한도전>	<극한도전>
CG 및 내용		
		
		
		

CG 및  
내용



CG 및 내용		
카메라 워크		
아이템 및 내용		

아이템 및 내용		
		
		
		
		
		

### (3) JTBC <히든싱어(Hidden Singer)><sup>6</sup>

중국의 <히든가수(隐藏的歌手)>(이하 <히든가수>)는 중국 동방위성TV에서 제작하여, 2015년 10월 18일부터 중국 상하이오락채널(上海娱乐频道), 심천도시채널(深圳都市频道), 베이징문예채널(北京文艺频道), 광저우종합채널(广州综合频道) 등 13개 지상파채널에서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JTBC의 <히든싱어(Hidden Singer)>와 명칭 및 디자인, 방식, 내용 등 다방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JTB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였다. JTBC는 위와 같은 포맷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무대장치(중국의 <히든가수> 역시 6개의 '히든문'이 존재하고, 해당 편에 출연하는 가수가 나와 매 라운드를 표시하는 등의 모

<sup>6</sup> “중 동방위성TV, 한국 방송프로그램 <히든싱어> 저작권 침해 부인”, 2015. 12. 1., 작성자 LHUA(베 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감수 이덕(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저작권보호센터 공식블로그 해 외저작권보호동향.

습이 같으며, 히든문이 열리면서 그 뒤에서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 청중과 대면하는 모습 등)도 〈히든싱어〉와 동일하다고 보아, 이에 따른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히든싱어(Hidden Singer)〉	〈히든가수(隱藏的歌手)〉
LOGO		
매 라운드 시작 전 화면		
패널단 소개화면		
히든문 6개		
촬영현장 무대미술		
가수와 모창자 등장장면		





이에 대해 동방위성TV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히든가수〉가 중국의 오리지널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과 저작권 분쟁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JTBC의 침해주장을 전면 부정하였다.

- 중국의 〈히든가수〉는 영문명이 없고, 한국의 〈히든싱어〉도 중문명이 없는데 이를 중문으로 번역하면 ‘히든가수(歌手)’ 또는 ‘히든가신(歌神)’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한국 JTBC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다름. 즉 한국의 〈히든싱어〉는 한 시즌이 13회로 되어 있는데 12회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13회에서는 경쟁의 성격인 왕중왕전이 펼쳐짐. 한편 중국의 〈히든가수〉는 한 시즌이 11회로 되어 있고, 마지막 11회에서는 모창자와 가수의 콘서트 등이 펼쳐지는 등 경쟁적인 요소가 없음.
- 프로그램 취지에 있어, 한국의 〈히든싱어〉는 오락적 측면과 경쟁요소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히든가수〉는 과거의 노래에 대한 향수, 가수와 일반인 참가자 사이의 감정 교류 및 노래 이면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에 취지가 있어 다름.
- 사회자의 경우, 한국의 〈히든싱어〉는 명확한 사회자가 존재하지만 중국의 〈히든가수〉에서는 가수 샤보우량(沙宝亮)이 스타 스카우트 역할을 맡아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4개 지상파 채널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회자들이 패널로 출연하며 연예인으로 구성된 판정단

과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진행됨.

- 청중의 경우, 한국의 <히든싱어>는 음반제작자 및 관계자 위주로 출연하지만 중국 <히든가수>는 가수의 친구 및 가족이 주를 이룸.
- 한국의 <히든싱어>는 무대장치가 상당히 화려한 반면 중국 <히든가수>는 투자가 제한적이라 상당히 소박함. 또한 <히든가수>의 무대배경은 <히든싱어>와 색감적인 면에서만 유사할 뿐, 중국 <보이스 드림(중국판 American Idol)> 제작팀이 만든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 또는 유럽스타일에 가까움.

위와 같은 동방위성TV의 입장에 대하여, 최근 JTBC의 <히든싱어> PD는 중국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sup>7</sup>

## 5. 방송 프로그램 포맷 표절 관련 대응 방안

그렇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미국, 독일 등 포맷 판매가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단 사례들이 나온 바 있는데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SBS가 CJ E&M을 상대로, CJ E&M의 채널 tvN에서 2012년 방송한 <SNL KOREA>가 SBS의 방송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sup>7</sup> <히든싱어>PD “中 표절프로, 문제 제기했으나 고소할 수 없어”, (2016. 5. 19.) 스타뉴스.

## (1) 포맷 표절 관련 판례

### 1) 미국, 독일 등<sup>8</sup>

▶ 영국-1989, UK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Green v. Broadcasting Corporation of New Zealand(BCNZ)

영국의 텔런트쇼 포맷인 <Opportunity Knocks>에 대해 UK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은 어문저작물도, 연극저작물도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989년). 이에 영국 특허청인 UK Patent Office는 1990년 포맷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고, 1994년 영국 의회에서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이하 'CDPA')의 개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 포맷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 독일-2003, Germany Federal Court of Justice; TV-Design v. Südwestrundfunk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구를 다루지 아니한 포맷(Non-fictional formats)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드라마(television series)는 허구적인 내용을 특징으로 하지만 예능쇼 포맷(entertainment show formats)은 대체로 허구적인 세계를 다루지 아니하는데, 저작권 보호는 허구적인 작품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미국-CBS v. ABC

CBS는 ABC의 <Celebrity>가 자사의 <Survivor> 포맷의 독창적인 요소들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방송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부정된 바 있다.

---

<sup>8</sup> "Protection of TV Program Formats", 홍승기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2014. 11. 30.)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 브라질-2003, TV Globo & Endemol v. TVSBT

문제가 된 사안은 <Big Brother>라는 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여부였다. 즉 일정시간에 한 집에 감금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표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브라질 법원은 모든 방송과정 등을 기재한 포맷 바이블을 통해 두 프로그램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표절의혹 포맷이 원포맷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국 브라질 법원은 위 사건에서 포맷의 저작물을 인정하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 네덜란드-Netherlands Supreme Court; Castaway v. Endemol

네덜란드 법원은 위 사건에서 포맷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있다고 보았고, 외부와 차단된 소그룹 구성원의 생활을 묘사한 Survivor 프로그램의 포맷을 12개의 요소가 혼합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표절의혹 프로그램인 <Big Brother>의 경우 그 중 9가지 요소가 유사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하나는 섬에서 카메라맨이 계속 따라다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집에서 카메라가 고정된 형태라는 점 등에서 서로 상이하고, 개별 요소들이 구체화된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2) 한국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SBS가 제기한 <썩>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방송포맷의 저작권법적인 보호에 관하여 어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지 기대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썩> 소송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포맷이 저작권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 ▶ CJ E&M의 <SNL KOREA>와 <짜꿍 게이머 특집>이 SBS의 < 짹> 프로그램의 기초로 하여 구상, 기획되었으나, SBS가 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한 영상이 < 짹> 영상물 자체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또한 리얼리티 짜짓기방송이라는 < 짹> 영상물의 특성에 비추어 < 짹> 영상물의 창작성은 위와 같이 출연자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 진행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코미디물로서 실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SNL KOREA>영상물과 출연자인 게이머들이 마치 게임처럼 수행할 과제를 부여 받고 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로 표현하고 있는 <짜꿍 게이머 특집>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 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 결과적으로 < 짹>과 <SNL KOREA>, <짜꿍 게이머 특집>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과 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SNL KOREA>, <짜꿍 게이머 특집>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 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 짹>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SNL KOREA>, <짜꿍 게이머 특집>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SNL KOREA>, <짜꿍 게이머 특집>은 출연자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 짹>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 짹>과 <SNL KOREA>, <짜꿍 게이머 특집>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고, 사상, 감정, 아이디어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위 판결에서 SBS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것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아이디어와 표현의 중간 영역으로 보고 포맷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송포맷에 관해 프로그램의 편성 및 진행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방송포맷이 여러 가지의 개별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개개의 구성요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방송포맷 자체는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저작물의 경우 소재 자체는 저작물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썩> 판결에 있어서도 개개의 아이디어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한 포맷바이블의 경우 그 구체성의 정도가 높으므로 보호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즉,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는 아이디어로 보일 수는 있으나, 프로그램 제목, 타이틀 화면,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관계, 등장방법, 무대 장치와 배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대사 또는 멘트, 화면 분할, 카메라 워크 등 포맷바이블에 정리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 개개의 아이디어들이 독창적으로 결합된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표절사례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볼 수는

---

<sup>9</sup> <저작권법> 제3판, 이해완 저, 박영사(2015) p43-44, p51.

없을까. 해당 중국 방송사들은 모두 여지없이,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모두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양 영상물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한도전>의 경우는 <무한도전>의 구성을 따라 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에피소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적어도 그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해당 영상물(에피소드)의 내용(표현)상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포맷 전체에 대한 침해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히든싱어>의 경우 포맷의 개개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적어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법원에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 창작적인 부분이 매우 유사한 <히든가수>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히든싱어(Hidden Singer)>와 <히든가수(隱藏的歌手)>는 관념이 매우 유사하므로 만약 <히든싱어(Hidden Singer)>표장이 중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법 위반 여부까지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방송포맷 표절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입장

### 1)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중국 내에서 방송포맷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를 여러모로 검색하여 보았으나 아직까지 포맷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의 방송사들은 중국 현지 방송사에 개별 공문을 보내 ‘표절’임을 주장했지만 중국의 방송사들은 표절을 부인하고 있고, 정식으로 포맷

을 구입하는 방송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요청했지만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중국의 방송 규제기관인 광전총국 역시 프로그램 포맷 표절에 대한 민원 제기에 ‘무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여론과 학계에서는 중국 방송사들의 포맷 표절이 횡행함으로 인해 포맷을 판매하는 외국의 방송사나 제작사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포맷을 수입하는 중국 내의 제작사, 방송사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015년 4월 15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해석(《北京市高級人民法院關於審理涉及綜藝節目著作權糾紛案件若干問題的解答》)’을 공표하였다.<sup>10</sup>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원 프로그램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나, 표절 의혹이 있는 프로그램 제작자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대거나 원 프로그램의 표현과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표현이 상이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이 방송 프로그램의 분쟁사건의 판단기준을 밝혔다. 방송포맷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작자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제작권이 있다.
-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은 프로그램에 대한 창작 아이디어, 프로세

<sup>10</sup> [중국] 中,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및 저작권법상의 보호”, (2016. 4. 15.) NHUA(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저작권보호센터 공식블로그

스, 규칙, 기술규정, 사회자 스타일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한 집합체로서, 예능 프로그램 포맷에서 아이디어에 속하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의 각본, 무대미술설계, 음악 등이 작품을 구성하면, 즉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종합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는 계약의 성격에 대하여는, 저작권 라이선싱, 기술용역 등 다양한 내용과 관련되므로 계약의 성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준은 지극히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 해석에 의해 중국내에서 방송포맷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상하이 제2중급 인민 법원 연구실(上海第2中級人民法院研究室)의 원박(袁博) 연구원은, 짝짓기 프로그램인 〈非诚勿扰〉의 경우 사회자의 대사, 무대 디자인,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없고 다만 프로그램 틀, 프로세스, 규칙을 모방하거나 참조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Voice of China〉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듣고 선택한 경우 의자를 돌리는 방식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기타 예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방식을 참조하고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방송포맷의 표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책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

<sup>11</sup> 저작권보호센터 공식블로그, (2016. 4. 15) 「중국」中,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및 저작권법상의 보호”, LILUA(베이징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이와 같이 중국 방송계의 현 상황이 신의칙(信義則)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부당성을 문제삼아 법적책임을 묻기에는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방송포맷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인 ‘아이디어(思想)’와 ‘표현(表达)’의 이분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부는 특정 방송포맷의 개별 특성을 부각하여 아이디어가 아닌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위 2분법 체계에서도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방송포맷(통상电视节目版式로 지칭되나, 일부에서는电视节目模式라고도 함)의 표절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전한 방송문화 발전을 위하여 방송포맷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계를 위주로 상당히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저작권 관련 다수의 학위 논문, 학술지 발표 논문<sup>12)</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한편 ‘부당성’에 기하여 현행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sup>12)</sup> “방송포맷의 저작권법 보호 검토(电视节目版式的版权法保护分析)” - 欧阳斗平, 2011년, 화동정법대학, 석사 논문. “방송포맷에 대한 법률보호 검토(电视节目版式的法律保护探究)” - 张立涛, 2012년, 화동정법대학, 석사 논문. “방송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电视节目版式的著作权保护)” - 李慧, 2012년, 호남사범대학 석사 논문. “방송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법률적 곤경과 진로에 대한 검토(电视节目版式版权保护之法律困境和近路探索)”, 黄小洵, 격월간지〈북방법학〉2013년 7월호. “방송포맷 저작권화에 대한 법률 검토(电视节目版式版权化的法律探究)” - 王志强, 向波 월간지〈湖北社会科学〉2014년 1월호. “방송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电视节目版式的版权保护机制)” 肖雪, 월간지〈今日财富: 中国知识产权〉, 2010년 11월호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① 경영자는 시장 거래 중, 자원 공평 평등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히고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본 법에서 경영자라 함은 상품 경영 또는 영리적 서비스(이하에서 상품에 서비스 포함)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제5조 경영자는 아래의 부정경쟁행위로 시장거래에서 경쟁대상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타인의 등록상표(注册商标)를 위조하는 행위

② 주지상품(知名商品)의 특유 명칭 포장 장식을 자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주지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지상품과 혼동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주지상품으로 오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③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④ 상품에 인증표지, 유명 우수 제품표지 등 품질(质量) 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거나, 산지를 위조하여 상품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할 수 있도록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에 해당되는 제2조 제2항<sup>13)</sup>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방송포맷 표절 행위는 시장경쟁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 요구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프로그램의 포맷 표절 행위에 대해 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직접적으로 방송포맷 표절을 문제삼은 사례는 아니나, 방송 프로그램의 동일한 명칭 사용을 문제삼은 사례(1심 북경시해정구 법원의 ‘(2015)해민(지)초자 제12859호’, 2심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의 ‘(2015)경지민중자 제2004호’ 사건)에서 2심 판결문에 인용한 1심 판결문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다.

1심 원고가 주장한 1심 피고의 방송 프로그램은 자신과 동일한 창작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신(scene)과 인물의 설정, 의상과 도구 등 창작 요소에 있어서도 자신의 작품과 근접하므로 이 또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즉 방송포맷의 표절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작품의 주제, 스타일에 대한 표현은 서로 다른 경영자」<sup>14</sup> 간에 서로 창작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여 각각의 특색을 지닌 작품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며, 나아가 「반부정당경쟁법」의 취지는 정당한 경쟁을 독려하여 정상적인 시장경영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작품의 주제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경쟁에 반한다」고 평가하였다. 즉 명시적으로 ‘방송포맷의 표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회적으로 방송포맷의 표절을 주장한 1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sup>13</sup> 중국의 다수의 학자들과 법원은 제2조 제1항의 원칙 조항에 위반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반부정당경쟁법 제2장(제5조 내지 제15조)의 11가지 부정경쟁행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장경쟁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 요구에 위배되는 행위는 제2조 제2항 위반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전정현 지음 / 권영모 감수, 세창출판사(2015) p.23

<sup>14</sup> 본 사례에서는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보고, 프로그램 명칭을 상품명으로 보아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정한 상품 특유의 명칭을 모방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여 본 관례로 ‘경영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러나 2심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아 그 판단을 알 수 없다.

국내 <썩> 판결에서도 SBS는 '피고(CJ E&M, 이하 같음)가 <썩>의 표현과 구성 등을 기초로 <SNL KOREA>, <썩썩 게이머 특집>의 소재로 사용하여 시청률을 높이거나 광고수익을 올리고, 유상으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가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을 광고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원고(SBS, 이하 같음)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인 <썩>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경쟁자인 원고가 그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sup>15</sup>하였으나 배척되었다.

실제 <썩> 사건의 경우 <SNL KOREA>가 패러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판사가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무단 편승의 태양이 뚜렷한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썩>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부정당경쟁법에 위 차목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 한,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2항이 일반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로 인해 바로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sup>15</sup> 당시에는 무단편승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에 따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후 2013. 7.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신설됨으로써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 6. 결론

국내에서도 방송포맷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방송포맷의 표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구성하기에도 중국에서 아직 선례가 없고 반부정당경쟁법의 일반조항의 해석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 자국 내 방송사의 포맷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포맷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정부당국에 대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 광전총국 등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횡행하는 방송포맷에 대한 침해로부터 우리 콘텐츠의 가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TV 프로그램 포맷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V 프로그램 포맷 관련 비영리 국제기구인 ‘포맷등록 및 보호협회(FRAPA)’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와 제휴해 운영하는 포맷 중재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도 FRAPA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FRAP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mhkim@jipyong.com